

대학 출판학과, 제대로 기능하나

출판현장과 유리된 교육 프로그램... 교과과정 현실화 시급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 이상 정규교육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출판학과는 10개 전문대학, 2개 대학, 6개 전문대학원 등 총 18곳에 이른다. 이처럼 여러 대학과정에 출판관련학과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는 학과설치가 주목적이었던 과거의 양상에서 벗어나 커리큘럼, 교수진, 취업과의 연계, 학문으로서의 자리매김 등 구체적인 현안들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에 출판관련학과가 생겨야 한다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1967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국립대학에 출판학과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이같은 논의는 그 후 여러차례에 걸쳐 출판관련 단체들이 정부 관련부처나 대학측에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 80년대 초반 결실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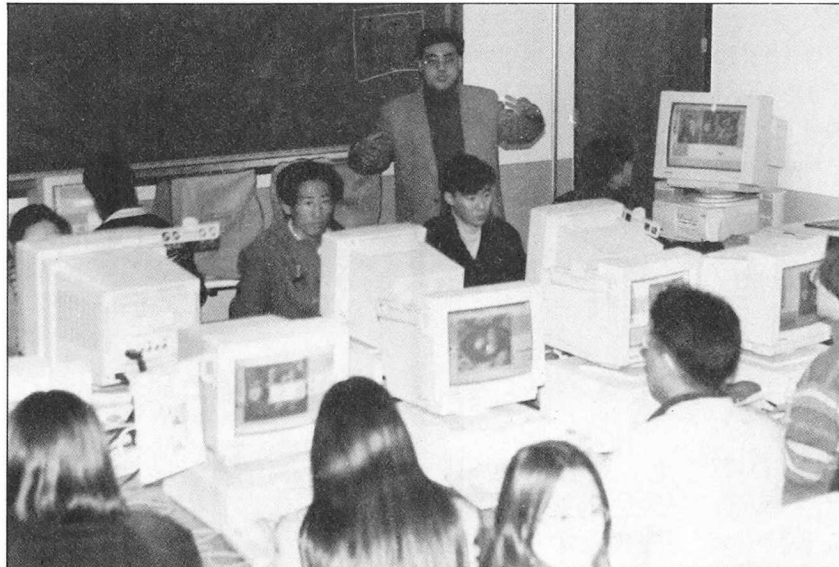
국내에 처음 전문대학 이상 과정에 출판 관련 전공이 생긴 것은 81년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 출판잡지전공이 설치된 것이 효시였다. 그후 82년 혜전전문대학에 출판과가 설치됐고, 89년 4년제 대학으로는 최초로 광주대학교에 출판광고학과가 생겼으며, 95년 3월에는 원광대학교에 문예출판학과가 개설되었다.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

대학에 설치된 출판학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직 대학내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출판이 워낙 수많은 학문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다 설치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학문의 성과나 체계가 열악한 것이 주요 원인.

출판은 대개 기획, 제작, 분배의 세가지 과정을 거치므로 이에 대응하는 학문영역은 어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미술과 인쇄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전문대학 출판과의 학문분류를 신문방송학과나 도서관학과 함께 사회과학계로 분류하고 있지만, 교육부 전문대학 학과과에서는 인쇄학과 함께 공업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혼란은 설치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광주대 출판광고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 원



신구전문대학 출판과의 전산편집 실습장면.

광대 문예출판학과는 인문과학대학에 속해 있다.

이같은 상황은 대학원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각기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등 서로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다. 학위는 대부분 문학석사 학위를 주고 있으나,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 전공과정은 정치학석사를 수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판 관계자들은 "대학의 전공이 세분화되는 세계적인 현상과 여러 유관 분야를 지니고 있는 출판의 특수성, 짧은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혼란이기는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자국의 학문분화의 특성에 맞추어 체계를 잡아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의 경우, 출판학의 연구경향이 입장과 상황에 따라 나라별로는 다르지만 자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학사회학에 속하고 미국에서는 경영학에 가까운 반면 중국에서는 편집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결국 전문화도 좋고 사회적 수요에 따른 학과의 세분화도 필요하지만 일단 계통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수진과 교육과정도 개선돼야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 및 대학의 출판관련학과 교수는 총 44명으로 전체 재학생수가 2200명인 것을 감안하면 학생대

교수 비율이 50:1로 전체 대학의 32:1(94년 교육부자료)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이들 교수진의 전공분야도 출판학이 22%에 불과해 교수진의 확보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과과정의 경우, 일반교양과목들을 제외하고 총론부문은 출판개론·인쇄학개론·매스컴론 등 10여개 과목을, 이론부문은 출판기획·출판경영·출판법규·출판마케팅·출판광고 등 20여개 과목을, 실습부문에서는 편집레이아웃, 편집실습, 전산편집, 교정실습, 문장론 등 40여개 과목을 강의하고 있지만 학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진과 실습시설, 교재의 태부족으로 "과목의 백화점식 나열일 뿐 실전위주의 교육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대 출판과를 졸업하고 잡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씨(24, 여)는 "대학시절에 배운 것들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개설된 교과목의 명칭에 비해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많았으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수진에 의한 내용있는 교육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출판상황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자출판, 멀티미디어 관련 교과목들의 신설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실습시설도 출판업의 발전속도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도 타자기·워드프로세서·청타조판기·수동사진식자기 등을 주요 실습기자재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전산사식출력기, 스캐너, 매킨토시 등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2.3군데에 불과하다.

취업율이 높은 반면 이직율도 높아

지금까지 설치된 지 얼마되지 않아 졸업생이나 수료생을 아직 배출하지 못한 곳을 제외한 16개의 전문대학 이상 정규과정에서 배출된 출판인력은 1600여명에 이른다. 한국출판학회(회장 민병덕)에서 펴낸 세미나 자료집 <21세기 출판발전을 위한 전문인 육성책>에 수록된 통계에는 이들의 취업율이 평균 91%로 집계되고 있어 전체 대학 취업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그중 출판관련 업계 취업율은 68%로 나타나 수치상으로만 보았을 때 대학에서의 출판교육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졸업생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취업의뢰를 받고 찾아간 업체들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등으로 졸업생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아 한 직장을 6개월 이상 다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이른바 일할 만한 직장에서 취업의뢰가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사대학 출판과의 한 조교는 "졸업생들의 이직율이 워낙 높아 현재 졸업생들의 출판계 취업율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졸업직후에 집계한 동종업계 취업율 68%에 훨씬 못미칠것은 분명하다"고 밝힌다.

출판학과에서 배출한 인력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출판사 경영자들도 "현재까지의 출판학과 교육내용과 성취도는 학문으로나 실전에 있어서나 조금 미숙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출판사의 7사장은 "출판학과 졸업생들이 의욕과 열의는 돋보이지만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교양이 부족하고 문화산업을 파악하는 총체적인 시각에 있어 여타 인문사회계열학과 졸업생들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혜전전문대 출판학과 민병덕 교수는 "출판학과 교육내용이 기능위주에서 출

정규교육과정 출판학과 개황

구분	학교(학과)	설립연도	소재	계열, 학위
전문대학	해전전문대학 출판과	82.3	충남 홍성	공업
	신구전문대학 출판과	89.3	경기 성남	공업
	대전전문대학 출판과	89.3	대전	공업
	부산전문대학 출판과	89.3	부산	공업
	대구전문대학 출판 인쇄과	90.3	대구	공업
	서일전문대학 출판과	92.3	서울	공업
	백제예술전문대학 출판편집과	92.3	전북 완주	예체능
	경인여자전문대학 전자편집디자인과	93.3	인천	예체능
	동주여자전문대학 편집디자인과	93.3	부산	예체능
	경기전문대학 문예편집과	95.3	인천	예체능
대학	광주대학교 출판광고학과	89.3	광주	사회과학대학, 문학사
	원광대학교 문예출판학과	95.3	전북 이리	인문과학대학, 문학사
대학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출판잡지전공	81.3	서울	사회, 문학석사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출판잡지전공	88.3	서울	사회, 문학석사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학과 출판잡지전공	89.3	서울	사회, 정치학석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잡지출판전공	92.3	서울	사회, 문학석사
	서강대 언론대학원 신문출판학과 출판전공	92.8	서울	사회, 문학석사

판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다 폭넓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내실화가 관건

이제 태동기에 접어든 대학 출판관련학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문적 계통의 수립이다. 출판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판학과 관련학문들과의 원활한 교류와 각 연구성과물들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학문적 체계잡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나, 연구방법론과 연구대상의 모색과 탐구가 아직 부족하고 연구결과와 발표도 극히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두번째로는 정규 4년제 대학에 출판학과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 수 있다. 한샘출판연구소의 김희락소장은 "현행 학제로는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계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다 학교간에 불균형이 심하고,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거친 졸업생들이 대

학원에 진학해 연구나 교육의 길을 걷게 되므로 출판학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좋은 출판학교수의 양성을 위해서도 정규 4년제 대학과 일반대학원에 출판학과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번째는 학생들이 취업 이후 개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 문화인력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급변하는 출판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의 자유선택 폭을 넓혀 문학 철학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 가치추구적인 과목과의 연계성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관련부처와 대학측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출판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해 출판인을 양성하고 출판을 연구하는 대학에서의 출판교육은 극히 열악한 상태로 진행돼왔다. 사회 모든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출판의 학문적 체계수립과 유능한 출판인의 양성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절실하다는 것이 모든 출판인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 허 연 기자



전화 한 통화가 뜻밖의 결과를 만든다?

▶ 책을 내시고자 하는 분

좋은 원고는 있는데 책으로 출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책으로 역을 만한 삶의 경험이나 자료는 있는데 집필을 하실 수 없어 망설이지는 않으십니까? 더욱이 문화적으로는 이 땅에 꼭 필요한 도서가 될 터인데 요즘 같은 출판불황 속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하겠다는 곳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렇다고 직접 출판을 하거나 예상되는 시간과 경비의 손실을 걱정하시진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저희와 상담해 주십시오. 기획에서부터 제작·영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접출판의 효용성을 저희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 출판사업을 하려는 분

출판 영업과 경영을 모르는 분, 예상되는 과중투자가 지신없는 분, 출판원고와 기획수립이 막대한 분, 그런데도 반드시 출판문화사업에 투신해야겠다는 열정을 가진 분이려면 저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지 않게 당신의 출판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를 매각하실 분도 연락하십시오. 전화 한 통화가 뜻밖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광고는 본사를 통해 출판된 책임입니다.

▶ 본사에서 하는일 ◀

원고은행·단행본, 잡지 기획·편집·제작 및 출판컨설팅

토탈출판서비스 **출판미디어** Tel. 738-2116 Fax. 738-2128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63-4(220호) 우:110-080

지식인 제위여, 정신 차리소!

- 모형으로 풀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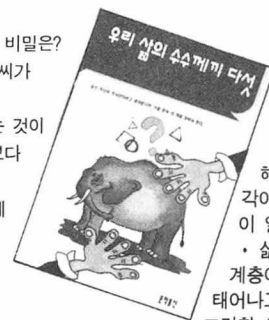
우리 삶의 수수께끼 다식

박민학 지음

우리시대 지식인의 직무유기를 통렬히 고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

감감한 그름날 밤 대한민국이란 번호판을 부착한 중형승용차 한 대가 선진국이란 마을로 진입하다 말고 갑자기 멈춰서려 한다. 바퀴와 동력장치, 차창 안의 모든 계기판도 정상이다. 도대체 어느 부품에 고장이 났을까? 우리 모두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빛을 쏘아 자동차의 행방을 인도하는 전조등 곧 헤드라이트에 이상이 온 것이다.

- 1] 화전민 부부가 지닌 행복의 비밀은?
- 2] 전신마비 장애인 임종욱(38)씨가 꿈꾸는 희망은?
- 3] 줄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까닭은?
- 4] 알음알이, 지식은 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가?"란 물음에 그 해답을 주지 못하나?
- 5] 이웃을 위해 살신성인은 의인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것은?



▶ 삶의 현장에서 발굴한 이 소프트 웨어적 의문 다식을 푸는 순간

· 이제껏 무척임한 지식인들에 의해 잘 길들여진 당신의 의식구조에 지각이 움기하는 듯한 파천황의 정신 혁명이 일어난다.
· 삶의 무대 뒤편에 움크린 소외된 모든 계층이 이 무대의 최고 주연배우로 거듭 태어나고,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그러한 세상이 실제로 당신 눈앞에 도래한다.

문학동네 / 신국판 / 값 5,500원 /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